

1.1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1)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예** 사람, 꽃, 나무

- ① 자립 명사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들
- ② 의존 명사 - 꾸밈을 받아야지만 사용될 수 있는 명사

관형사형 어미(**예**-은, -는, -을, -던) 뒤의 ‘수, 것, 만큼, 따름, 뿐, 대로, 지, 채’ 등
 수관형사(**예** 한, 두, 세, 네) 뒤의 **개, 그루, 마리, 명** 등 단위를 나타내는 말

예 나는 할**수** 있다. / 영미가 가져온**것**은 책이다. / 난 할**만큼** 했다.
 나는 그저 기쁠**따름**이다. / 그는 말만 그렇게 할**뿐** 실천하지 않는다.
 내가 한**대로** 따라 해 봐라 / 그가 떠난**지** 10년이 넘었다. / 옷을 입은**채**로 물에 들어가다.
 사과 두**개** / 나무 두**그루** / 토끼 세**마리** / 친구 다섯**명**

적용 문제-1

2016학년도(2015년) 9월 평가원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순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냇다 도망쳤다.

더 알아보기 I 의존 명사의 종류

의존 명사 뒤에 어떤 조사가 결합되는지에 따라 보편성, 주어성, 서술어성, 부사어성 의존 명사로 나눌 수 있다. 보편성 의존 명사는 어떤 격조사와도 잘 어울리고, 주어성 의존 명사는 주격 조사 '이/가'와, 서술어성 의존 명사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부사어성 의존 명사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다. 물론 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

- 보편성 의존 명사 **예**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 나는 먹을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먹을 **것**이다.
- 주어성 의존 명사 **예** 어쩔 **수**(가) 없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니?
- 서술어성 의존 명사 **예**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 부사어성 의존 명사 **예**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는 그가 공부를 잘하는 **줄**로만 알았다.

(2) 대명사: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

① 인칭 대명사

- ㉠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 ㉡ 2인칭: 너, 너희, 자네, 당신, 그대, 귀하
- ㉢ 3인칭 [이이, 그이, 저이, 이분, 저분, 그분 ……
재귀 대명사: 저, 자기, **당신**, 저희

재귀 대명사란? 한 문장 안에서 나온 체언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받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
예 철수는 **그**가 천재라고 생각한다.(대명사) vs 철수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한다.(재귀 대명사)
예 그는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트렸다.(그=저) / 아이들은 어려서 **저희**밖에 모른다.(아이들=저희)
예 이 책은 아버님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것이다.(아버님=당신) ☆☆☆

② 지시 대명사: 사물이나 공간을 가리키는 대명사

	화자에게 가까움	청자에게 가까움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멀
사물	이, 이것	그, 그것	저, 저것
공간	여기, 이쪽	거기, 그쪽	저기, 저쪽

③ 미지칭 대명사 / 부정칭 대명사 - 인칭, 사물에 모두 사용

- ㉠ 미지칭 대명사: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무엇인지 **모를 때** 사용
예 누구세요? 날씨가 **언제**야? 장소가 **어디**야? 그게 **무엇**이니?
- ㉡ 부정칭 대명사: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or 굳이 밝히지 않는 것**
예 누구나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물어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그는 **뒀**에 흘린 듯이 걸어갔다. 오늘은 **어디** 갈 데가 있어.

더 알아보기 I 미지칭과 부정칭의 구별법

'누구, 언제, 어디, 무엇' 등 형태가 똑같이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부정칭은 ①정해지지 않은 것 (**예**누구나 환영입니다), ②굳이 밝히지 않는 경우(**예**나 지금 **누구** 좀 만나러 가야 해.)이고, 그 외에 몰라서 묻는 질문은 대부분 미지칭이다(**예**아까 만난 사람은 **누구**야?).

적용 문제-2

2007학년도(2006년) 6월 평가원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보 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군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3) 수사: 수량이나 순서(=차례)를 나타내는 말

① 양수사(수량): 하나, 둘, 셋, 넷(고유어계) / 일, 이, 삼, 사(한자어계)

예 **사람 다섯**이 걸어온다.

② 서수사(순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고유어계) / 제일, 제이, 제삼, 제사(한자어계)

예 **첫째**가 진리이고, **둘째**가 자유이다.

cf. ‘첫째’가 ‘형제자매에서 제일 순위인 사람’을 뜻할 때에는 명사이다.

(4) 체언의 공통점: 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 ☆☆☆

예 **책상이** 넓다. - 명사

예 **내가** 밥을 먹는다. - 대명사

예 저기 **사람 다섯**이 있다. - 수사

1.2 용언 - 동사, 형용사

(1) 동사: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말

- ┌ 자동사: 주어의 움직임만을 나타내는 동사(목적어 無) **예** 나는 학교에 **간다**.
- └ 타동사: 주어의 움직임이 목적어에도 영향을 주는 동사(목적어 有) **예** 밥을 **먹다**.

(2)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더 알아보기 |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법 **필수개념**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니다(는다)’를 붙여보는 것이다. 동사는 결합이 가능하고, 형용사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예 달리다 - 달린다(O) / 먹다 - 먹는다(O) / 높다 - 높는다(X) / 예쁘다 - 예쁘다(X)

형태가 같은 동사와 형용사들도 이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빨리 **크다/큰다(O)**. ∴ 동사, 그는 덩치가 **크다/큰다(X)**. ∴ 형용사

예 새벽이 벌써 **밝다/밝는다(O)**. ∴ 동사, 햇빛이 **밝다/밝는다(X)**. ∴ 형용사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잘생기다’는 ‘잘생긴다’가 불가능하지만 품사가 동사이다. 왜 동사인지는 ‘5. 시제와 상 5.5. ☺더 알아보기’를 참고하자.

더 알아보기 | ‘있다’와 ‘없다’의 품사 **필수암기**

결론부터 말하면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있고, ‘없다’는 항상 형용사이다. ‘있다’가 [머물다]의 의미일 때, 혹은 보조용언일 때에는 동사, [소유], [소재(所在)]의 의미일 때는 형용사이다.

예 여기에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 [머물다] ∴ 동사

아침에 일찍 일어나 깨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 - 보조용언 ∴ 동사

나는 책이 10권 **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 - [소유] ∴ 형용사

컵이 책상에 **있다**. 방 안에 사람이 **있다**. - [소재] ∴ 형용사

그런데, 형용사 ‘있다’와 ‘없다’는 동사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품사는 형용사임을 알아두자.

예 생각이 **있는/없는** 사람 →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에만 결합되지만, 예외적으로 형용사 ‘있다/없다’에도 결합된다.

(3) 본용언과 보조용언

용언이 두 개 나열되었을 때는 ‘**본용언+본용언**’이거나 ‘**본용언+보조용언**’의 구성이다. 보조용언은 본용언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① 본용언 + 본용언: 두 용언의 의미가 모두 살아있다.

예 종이를 휴지통에 **찢어 버린다**.

그는 학교에 밥을 **먹고 간다**.

문을 **열고 나가라**.

돈을 한꺼번에 말고 **나눠서 주어라**.

01. 형태론

② 본용언 + 보조용언: 보조용언은 본용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본용언 없이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

- 예 내가 아끼는 옷을 동생이 **찢어 버렸다**.
밥을 다 **먹어** 간다.
그는 붓을 들고 글을 **써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동생을 **업어 주었다**.



더 알아보기 |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별하기 **필수암기**

용언이 두 개 나열될 때, 앞의 용언은 항상 본용언이지만, 뒤의 용언은 본용언이나 보조용언이다. 이때 뒤의 용언이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바로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는지 없는지이다.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으면 본용언, 그렇지 않으면 보조용언이다. 또는 제1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로도 알 수 있다.

- 예 그는 학교에 밥을 먹고 **간다**. ⇒ 그는 밥을 먹다. 그는 학교에 간다. 'go'의 의미가 있음 ∴ '간다'는 본용언
예 종이를 휴지통에 **찢어 버린다**. ⇒ 종이를 찢는다. 종이를 휴지통에 버린다. 'dump'의 의미가 있음 ∴ '버린다'는 본용언
예 나는 동생을 업어 **주었다**. ⇒ 나는 동생을 업었다. 'give'의 의미가 없음 ∴ '주었다'는 보조용언
예 실수로 돈을 **찢어 버렸다**. ⇒ 실수로 돈을 찢었다. 'dump'의 의미가 없음 ∴ '버렸다'는 보조용언

적용 문제-3

2017학년도(2016년) 6월 평가원 변형

<보기>의 ㉠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보 기>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형식

㉠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한다.

-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되랴**.
-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4) 어간과 어미

① **어간**: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예** 먹-, 가-, 달리-, 예쁘-

② **어미(語尾)**: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 **예** -고, -니, -아서, -(으)니

- ㉠ 어미의 종류
- └ 밥을 **먹다**.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가라.(어말 어미)
 - └ 밥 **먹었**니? 할아버지께서 집에 **가**시다.(선어말 어미)

‘어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단어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먹다, 먹을, 먹고’에서 ‘-다, -을, -고’는 단어의 맨 끝에 왔기 때문에 어말 어미이다. 반면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先) 온다는 의미이다. 즉 ‘먹었니, 가시다’의 ‘-었-, -시-’는 어말 어미 ‘-니, -다’ 앞에 왔으므로 선어말 어미이다. 선어말 어미에는 딱 2가지 종류만 존재하는데, 바로 ‘**시제와 높임**’이다.

필수암기

어말 어미	종결 어미(문장이 끝남)	밥을 먹다 . 먹 니?
	연결 어미	밥을 먹고 가라.
	전성 어미(성격을 바꿔줌)	밥 먹을 사람
선(先)어말 어미(시제, 높임)		밥 먹었 니? 집에 가 시다.

㉡ 전성 어미의 종류 **필수암기**

- 명사형 전성어미: -(으)ㅁ, -기
 - 예**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기’가 ‘비다 오다’라는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준다.
-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 -는, -(으)ㄹ, -던
 - 예** 나는 [동생이 입**은**] 옷을 보았다. → ‘-은’이 ‘동생이 옷을 입다’라는 문장을 관형사처럼 만들어준다.
- 부사형 전성어미: -게, -도록, -듯이
 - 예** 나는 [아이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 ‘-도록’이 ‘아이들이 지나가다’라는 문장을 부사처럼 만들어준다.

적용 문제-4

2023학년도(2022년) 9월 평가원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의 어미는 용언 어간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누어진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제나 높임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선어말 어미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쓰일 수도 있고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머무시는 동안 ㉠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 이 부분에서 물이 ㉡ 났을 가능성이 높다.
- ㉢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류를 챙겨 주세요.
- 시원한 식혜를 먹고 갈증이 싹 ㉣ 가셨겠구나.
- 항구에 ㉤ 다다른 배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했다.

- ① ㉠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② ㉡ : 선어말 어미 없이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 : 선어말 어미 세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 : 선어말 어미 한 개와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더 알아보기 | 전성 어미 vs 파생 접미사

파생 접미사는 뒤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기로 하자. 전성 어미와 파생 접미사의 형태가 같아서 둘을 구별하는 문제가 수능에 많이 나온다.

‘꿈을 꿈’이라는 말을 봤을 때 ‘진짜’ 명사는 앞의 꿈일까 뒤의 꿈일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의 꿈이라고 잘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진짜’ 명사는 동사 ‘꾸다’에서 완전히 명사로 바뀐 경우(=파생 접미사가 붙은 경우)이고, 뒤의 꿈의 품사는 여전히 동사이고 형태만 명사형으로 바뀐 경우(=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경우)이다. 이와 같이 ‘**접미사**’는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미**’는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 다른 차이점은 **용언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것은 여전히 품사가 용언이기 때문에 서술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꿈을 꿈’의 뒤의 ‘꿈’은 ‘꾸다’로 바꿀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사어와 관형어의 수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말은 여전히 품사가 용언이므로 부사어의 수식이 가능하고,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말은 품사가 명사이므로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하다.

1. 품사 한 줄 N제

정답및해설 p.22

1. 체언에는 _____, _____, _____가 있다.
2. 명사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 _____, _____로 나뉜다.
3. 의존명사는 반드시 _____의 꾸밈을 받아야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명사이다.
4. '영미가 가져 온 것은 책이다.'에서 의존 명사는? _____
5.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에서 의존 명사는? _____
6. '당신'은 _____인칭 대명사로도, _____인칭 대명사로도 쓰인다.
7. '그 일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게.'에서 주어는 _____인칭 대명사이다.
8. '너희들은 무엇을 좋아하니?'에서 주어는 _____인칭 대명사이다.
9. 재귀대명사는 _____인칭 대명사에 속한다.
- ★ 10.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부자리를 개신다.'에서 '당신'은 _____인칭 대명사이다.
11. '이, 그, 저' 중에서 화자와 청자에게서 모두 먼 대명사는? _____
- ★ 12.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모르는 것은 [미지칭/부정칭]이고,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미지칭/부정칭]이다.
13. 수사는 _____와 _____로 나뉘며, _____계와 _____계가 존재한다.
- ★ 14. 수사와 수관형사는 조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면 _____이고, 불가능하면 _____이다.
15.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면 _____이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 _____이다.
16. 문장에서 목적어라고 하면, 목적격 조사 _____(이)/가 붙은 것을 의미한다.
17. 동사는 현재 시제 '-(느)ㄴ다'가 결합할 수 [있고/없고], 형용사는 결합할 수 [있다/없다].
18. _____은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없으며 본래 용언의 의미에서 벗어나 본용언의 뜻을 더해준다.
19. 보조 용언 중, 부정을 나타내는 _____, _____는 앞 용언의 품사에 따라 품사가 결정된다.
20. 동사나 형용사가 어미를 바꾸면서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_____(이)라고 하고, 그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_____(이)이라고 한다.
21. '예쁘고, 높아서, 달려서'에서 각각의 어간은?
- ★★ 22.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_____라고 한다. ㉠_____는 크게 단어의 끝에 오는 ㉡_____와 단어의 끝에 오지 않는 ㉢_____로 나눌 수 있다. ㉡_____는 또 문장을 끝내는 ㉣_____, 문장을 연결하는 ㉤_____, 성질을 바꿔주는 ㉥_____로 나눌 수 있다. ㉣_____의 의미는 대부분 ㉦_____와(과) ㉧_____표현을 나타낸다.
- ★★ 23. [용언의 명사형/파생 명사]은(는) 관형어의 수식이 불가능하나, [용언의 명사형/파생 명사]은(는)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하다.
- ★★ 24. [용언의 명사형/파생 명사]은(는)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나, [용언의 명사형/파생 명사]은(는) 부사의 수식이 불가능하다.

25. 어간의 형태 변화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규칙/불규칙] 활용이다. 그런데 어간 형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보편적인 _____으로 설명될 수 있으면 [규칙/불규칙] 활용에 포함시킨다.
26. ‘흐르다, 푸르다, 따르다’ 중 ‘르’ 불규칙인 것은?
27. ‘르’ 불규칙은 어간의 _____이(가) _____로 교체된다.
28. 관형사는 _____관형사, _____관형사, _____관형사로 나눌 수 있다.
29.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은 모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관형사는 형태가 변할 수 [있고/없고], 용언의 관형사형은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없다는] 것이다.
30. _____는 주로 뒤에 오는 단어(용언)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말로, 용언이나 관형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31. 부사는 한 단어를 꾸며주는 _____부사와, 문장을 꾸며주는 _____부사로 나눌 수 있다.
- ☆ 32. ‘그리고, 그러나, 또한, 및’처럼 접속의 기능을 하는 말들은 [성분/문장] 부사에 속한다.
33. 부사는 일반적으로 _____을(를) 수식하지 않지만, ‘바로, 겨우’ 등은 이를 수식할 수 있다.
34. 조사는 일반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나 서술격 조사 ‘_____’만은 활용한다.
35. 조사는 _____, _____, _____로 나뉜다.
36. 보격 조사가 붙는 보어는 ‘_____’ 앞에 있는 성분이다.
37. 품사 분류는 크게 ‘_____’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38. 품사는 형태에 따라 _____, _____(으)로 분류한다.
39. 품사는 기능에 따라 _____, _____, _____, _____로 분류한다.
40. 품사는 의미에 따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로 분류한다.
41. ‘철수는 자기 집에 도착했다’의 ‘자기’는 재귀 대명사이다. [O/X]
42.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니?’의 ‘누가’는 [미지칭/부정칭] 대명사이다.
43. ‘그쪽이 먼저 시비를 거셨잖아요.’에서 ‘그쪽’은 _____인칭 대명사이다.
44. ‘음식을 먹어 대다’에서 ‘대다’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45.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꼭 음식을 끓여 먹도록 하자.’의 ‘먹도록’은 [본용언/보조용언]이다.
46. ‘얼음이 얼은 걸 보니 밖이 엄청 추운가 보다’의 ‘보다’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47.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의 ‘보거라’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48. ‘영미야 저것 좀 가져 와라.’의 ‘와라’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49. ‘정신이 없어서 책을 빼 먹고 가져왔다.’의 ‘먹고’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50. ‘그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 버렸다.’에서 ‘버렸다’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51. ‘나도 그거 한번 마셔 볼래.’에서 ‘볼래’는 [본용언/보조용언]이다.
52. ‘어제 복도에서 똥 사람은 누구니?’에서 ‘똥’의 ‘-ㄴ’은 [어말/선어말] 어미이고, [전성/연결/종결] 어미이다.
53. ‘할머니 모시고 영화 보러 가자.’의 ‘고’는 [어말/선어말] 어미이고, [전성/연결/종결] 어미이다.
54. ‘문을 닫고 들어와라.’에서 ‘닫고’는 [규칙/불규칙] 활용을 한다.
55. ‘똥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56. ‘문다(間)’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57. ‘빠르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58. ‘푸르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59. ‘하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60. ‘빨갳다’는 [어간/어미/어간&어미]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